

일제강점기 단군부정론과 고조선 영역축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오 현 수**

목 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 연구의 주요 내용

III. 단군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IV. 고조선 영역축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사 왜곡을 통해 한반도 통치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통칭 ‘식민 사관’으로 통하는 역사작업 중 일제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분야는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왜곡이었다. 이 작업에 가장 앞장섰던 일본인 학자로는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들 수 있다.

오다 쇼고의 단군전승에 대한 언급 중에서 주목해서 검토할 만한 주장은 고려 후기 불교계 인물이 날조했다는 것, 충렬왕 이전에 단군전승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우선, 오다 쇼고의 주장처럼 『삼국유사』에 기술된 단군전승에는 불교적 윤색이 가 미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자가 일연이라는 승려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누구라도 역사서를 기술할 때 자신의 개인적 인식이나 감정, 사상적 배경이 반영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홍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다음으로 『삼국유사』 이전에 단군전승을 기록한 문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화학, 고고학, 문헌학 방면에서 이를 극복할 만한 많은 연구 업적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마니시 류는 조선이 전국시대에 연나라의 세력에 압도되어 열수, 즉 대동강 남쪽까지 후퇴했고 연나라와 진나라는 대동강 북쪽까지 점유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 고조선의 역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렇지만 고조선-연나라 항쟁 과정 이전에 고조선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은 문헌과 고고학 방면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관자』에 기술된 발조선과 아울러 중국 동북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춘추시대 혹은 전국시대 초반 고조선의 존재를 알려준다. 그리고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에 대해서는 『위략』에서 만변한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만변한은 문헌과 변한현의 합성어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한서』 「지리지」의 〈요동군〉조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연나라의 침입 이전 고조선은 요동 지역에서 정가와자유형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영역을 한반도 서북부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려는 이마니시 류의 견해는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과 단군조선 혹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 복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단군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이 또한 연나라와 항쟁하던 전국시대 후반의 사실만을 인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오늘날 고조선사학계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대부분 청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고조선사의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오다 쇼고, 이마니시 류, 단군, 단군전승, 고조선, 삼국유사, 만변한

I. 머리말

일제강점기 일본은 한국사 왜곡을 통해 한반도 통치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통칭 ‘식민사관’으로 통하는 역사작업 중 일제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분야는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왜곡이었다. 만약 단군과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가 실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전되던 것이고, 고조선의 역사가 단군의 시기까지 소급된다면, 한국사 역사 왜곡작업의 첫 단추를 자기들

마음대로 끼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강점 하에 있는 조선의 역사가 본토인 일본사보다 더 오래되고 심오한 문화를 가져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단군조선은 자연스럽게 부정되었고, 고조선은 부왕-준왕으로 이어지는 시기로 한정되었다. 이마저도 중국 사람인 위만에게 탈취당하였고, 이어서 한나라 무제(武帝)에 의해 정복당해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었다는 논설로 이어진다. 일제강점기에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왜곡에 가장 앞장섰던 일본인 학자로는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들 수 있다.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사관을 창안하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식민교육을 강의하던 대표적인 식민사학자이다. 1896년에는 일본에서 제일고등학교 예과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였다. 189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곧 퇴학하였다. 이후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장, 제1고등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08년에는 대한제국 정부의 초빙으로 대한제국 학부 서기관이 되었고, 1910년에는 조선총독부 편집위원으로 편집국에 근무하며 역사 교과서 편찬에 종사했다. 1918년에는 조선반도사 편집 사업에 참여했고, 1923년에는 조선사학회를 조직하였으며, 조선제국대학 창립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자 예과 부장으로 부임하였고,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 위원이 되었다. 1932년 퇴직 후에는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오다 쇼고의 주요 저작물로는 『조선사요략』(1915), 『조선총독부편찬 교과서개요』(1917), 『조선사강좌 이조정쟁약사』(1923), 『조선사강좌 조선교육제도사』(1924), 『조선사대계 최근세사』(1927), 『조선지나(朝鮮支那)의 문화연구』(1929), 『조선반도의 역사』(1930), 『조선소사』(1931) 등이 있다. 이들 저술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축소하고, 식민사학적 소견을 드러내었다.

1927년 『조선사대계(朝鮮史大系)』에서도 단군은 중국의 고대 사료에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서 단군 및 단군조선을 부정하였다.¹⁾ 그리고 단군전설은 묘향산 산신과 평양선인(平壤仙人)의 전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평양의 개벽연기 전설이라고 평한다.²⁾ 이와 같은 그의 단군부정론은 일제강점기에 역사적 주류로 인식되면서 식민사학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최초로 한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인물이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사학’ 강좌의 담당 교수를 역임하며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남긴 것에 대해 학술사적 관점에서 당시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 왔다.³⁾ 그는

1) 小田省吾, 1927, 『朝鮮史大系』, 朝鮮史學會, 31~33쪽.

2) 小田省吾, 1927, 위의 책, 91~109쪽.

1903년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조선사를 연구하였으며, 1906년 한국에 건너와 신라의 경주를 답사하기도 했다. 그 후 교토제국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설립되자 조선사 교수가 되었다.

그는 『단군고(檀君考)』 등을 통해 단군을 부정하였고,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에서는 고조선의 영역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대 영역으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임나강역고(加耶疆域考)」를 통해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강화하였으며, 「백제국도한산고(百濟國都漢山考)」·『신라사연구』·『백제사연구』·『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の研究)』 등을 통해 한국고대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을 선 인물이다.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는 단군과 고조선 역사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철저하게 단군과 단군조선 및 기자조선을 부정하였으며, 고조선의 초기 역사를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와 항쟁하는 시기로 한정하였다. 이들의 견해 중 현재 한국 고조선사학계와 일치하는 것은 기자조선 관련한 사항이다. 현재 고조선사학계에서는 기자조선설은 한(漢)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위만조선과 자국의 연관성을 두어 통치에 이롭게 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고조선사의 체계 속에서 기자조선을 제외하게 되면, 위만조선에 앞선 시기는 모두 단군조선 시기가 된다. 이마니시 류는 단군을 부정하였고, 단군조선 시기의 영역을 크게 축소하여 왜곡하는 등 식민사학 정립에 큰 역할을 한 학자이다. 오다 쇼고가 주로 단군전승의 부정을 통한 단군부정론을 주장한 반면, 이마니시 류는 단군부정론 외에도 단군조선을 포함한 고조선의 시공간성을 축소하는 등,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왜곡에 더 앞장선 인물이다. 이마니시 류는 고조선[단군조선]의 초기 역사를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와 고조선의 항쟁 시기로 한정하였으며, 그 영역조차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더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두 학자의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역사 왜곡의 논설과 그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3) 정상우, 2021,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한국학연구』 제62집, 한국학연구소, 11쪽.

4) ‘기자조선설’을 최초로 언급한 문헌인 『상서대전』의 편찬은 복생 사후 복생의 문도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위만조선이 멸망한 때로서 고조선을 중국에 연계시키기 위해箕子東來說이 등장한 시기였는데, 이것이 『상서대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오현수, 2012, 「箕子 전승의 확대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9,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59~163쪽; 오현수, 2016, 「箕子傳承의 형성과정 연구」 『한국사학보』 제65호, 고려사학회 참조).

II.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 연구의 주요 내용

1. 오다 쇼고의 연구 내용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는 일제강점기에 단군과 고조선사의 역사 왜곡에 앞장을 선 대표적인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이 두 사람은 『삼국유사』에 기재된 단군전승을 고려시대에 일연이 창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이마니시 류는 단군조선의 영역과 역사 전개에 있어서도 신빙성없는 근거들을 내세우며 왜곡작업을 진행하였다.

오다 쇼고는 1925년에 조선사편수회의 위원이 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총독부가 한국사의 왜곡과 원활한 식민통치 수행을 위해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朝鮮史)』를 편찬하고 보급하기 위한 곳이었다. 조선사편수회에서는 총 9차에 걸쳐 회의를 열어 조선사의 편찬 형식과 구분, 체제, 방침, 작업의 감독, 일정 등을 의논하였다. 이중 8차 회의(1934)에서 오다 쇼고는 단군에 대하여 『동국통감』에서 ‘외기(外紀)’로 취급한 것을 들어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등, 한국의 상고사를 없애려는 작업을 했다는 평가⁵⁾를 받고 있다.

단군에 대한 그의 견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1926년에 발표한 『문교(文教)의 조선』 중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이다.⁶⁾ 『문교의 조선』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관변단체였던 조선교육회의 기관지로 1925년에 창간된 연속 간행물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이유를 대략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단군부정론’을 입론화시킨 상태에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에 불과하다.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에서 밝힌 단군부정론의 다섯 가지 근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그는 우선, 단군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삼국유사』는 불교계의 승려가 날조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이율곡, 이익, 안정복, 한치윤, 윤정기 등이 단군전승을 불신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이율곡, 이익, 안정복 등은 모두 성리학자로서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삼국유사』의 단군전승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태도라 할 수 있다.

5) 최혜주, 2010, 「小田省吾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7호, 동북아역사재단, 296~297쪽.

6) 小田省吾, 1926,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京城: 朝鮮教育會.

그리고 초기의 전승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단군전승이 일연이라는 승려가 작성한 『삼국유사』에서 불교적 윤색이 가미되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역사가가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더라도, 은연중 자신의 색채와 인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기술된 단군전승에 불교적 색채가 있다는 것과 단군전승이 창작된 것이라는 논점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오다 쇼고는 단군전승을 기술하고 있는 충렬왕 이전의 문헌 기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환웅이 내려온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부식이 쓴 묘향산의 보현사(普賢寺) 비문에는 단군전승의 내용이 없다. 만약 태백산이 묘향산이라면, 김부식이 쓴 보현사 비문에 단군 관련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오다 쇼고는 주장한다. 그렇지만 김부식은 신라계 유학자로서 『삼국사기』에 단군전승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현사의 비문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북방 중심의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군전승을 일부러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태백산이 묘향산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실정인데, 일연 등 일련의 사람들이 새롭게 이 둘을 연관시켜 보는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역사서 기술자나 연구자들에 따라서 태백산을 각기 다른 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 자신만의 근거로 비정을 했을 것이기에 비정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정한 판단이 단군부정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을 인종 시기로부터,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충렬왕 시기까지 시간적 격차인 140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40년이 지난 시점에 전승되어 오던 단군전승에 불교적 색채가 들어가면서 묘향산을 결부시켜 보려는 시도에서 일연은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언급했을 경우도 있다. 오다 쇼고는 충렬왕 이전에 단군전승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 등의 예에서 보면, 최소한 고구려 시기에 단군전승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존재는 오다 쇼고의 입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 번째로 단군은 한국 전체의 조상이 아니라 고구려 일국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다 쇼고의 한반도 역사에 대한 시각은 분열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분리해 보면서 북방은 중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남방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논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신라에 의해 통일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역사로 통합된다. 게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는 한반도 남부의 백제계와 신라계의 사람들까지 포섭하였고, 그 이후 현대의 한국인으로까지 역사적 정체성이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 고구려의 조상이라면, 단군은 현대 한국[북한 포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단군전승은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져 『삼국유사』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고려의 전신인 고구려 시조의 출현을 단군과 결부시키고 이를 불교의 제석천(帝釋天)에 갖다 붙이면서 고려는 불교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토였던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단군전승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고려 사람들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자긍심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단군전승만큼 유용한 아이템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일연은 기존에 있던 단군 관련 서적인 『고기(古記)』와 『위서(魏書)』에 기술된 단군전승을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환인을 제석으로 본다든지 하면서 승려의 입장에서 해석하였을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오다 쇼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사정이 단군부정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섯 번째로 오다 쇼고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단군전승은 국가적 색채를 더욱 짙게 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연하게 선전했다고 비판한다. 세종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삼국유사』에 비하여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세종 때 평양에 단군사(檀君祠)를 세워 동명왕(東明王)과 함께 단군을 제사지냈고, 세종대의 『용비어천가』와 문종대의 『고려사』에서도 모두 단군조선의 시대를 인정하였으며, 성종대의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여러 곳에 걸쳐 단군의 유적지라면서 그 유래를 기술해 놓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외국과 교섭을 하면서 민족적 정신에 강렬한 경각심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단군전승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와 한말 시기 단군의 부각에 대한 오다 쇼고의 견해를 수긍하더라도 이러한 견해 또한 단군전승의 비 역사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단군이 실존했든, 창작된 것이든, 한말에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단군전승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후에 단군전승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단군전승의 실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이마니시 류의 연구 내용

다음으로 이마니시 류의 견해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1929년에 출간한 『청구설총(靑丘說叢)』에 게재한 「단군고」에서 단군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단군전승에 대해 유교와 도교에 의해 윤색된 것으로, 단군은 평양 지역에서 신앙되던 선인(仙人)이라고 하였다.⁷⁾

그리고 1934년에 발행된 『조선사의 간[朝鮮史の槩]』에서 다시 한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선사의 간』에서는 한반도의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통사를 서술하였다. 이

중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이라는 글은 단군과 고조선사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자동래설을 부정하면서 낙랑(樂浪)의 한 유력 가문이 조선왕의 후계자로 칭해서 가작(假作)한 것이라 하였으며, 평양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왕검선인(王儉仙人)을 고려의 고종(高宗) 때에 단군이라고 이름하여 고조선을 개국한 인물로 여겼다고 주장하였다.⁸⁾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에서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한 것이다.⁹⁾ 이글에서 이마니시 류는 고조선을 중국의 전국시대에 존재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연나라에 패퇴하는 약한 나라로만 그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고조선은 연나라의 세력에 압도되어 열수(烈水), 즉 대동강 남쪽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나라는 강성할 때에는 대동강 북쪽까지 영유했다가, 한나라가 일어나자 패수(溟水)를 경계로 했는데, 이 패수를 청천강으로 보았다. 한나라와 조선 사이의 빈 땅인 진고공지상하장(秦故空地上下鄕)의 영역도 청천강~자비령 일대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연나라의 침입 범위와 패수 및 진고공지상하장에 관한 그의 위치 고증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연나라의 침입 범위는 연나라의 직접적인 문화 이식이 어느 영역에까지 미쳤는지가 관건이고, 진고공지상하장의 영역도 진나라의 군사적 주둔지 등의 확인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고조선의 역사성을 전국시대 중반 경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고고학 발굴과 그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인해 고조선의 시간성과 공간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의 고조선 영역에 대한 견해는 일제강점기에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생긴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마니시 류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고조선의 영역과 역사성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주안점이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상 오다 쇼고의 ‘단군부정론’과 이마니시 류의 ‘고조선 영역 축소론’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다. 오다 쇼고의 주장의 핵심은 고려 후기에 일연이라는 불교계 인물이 몽골의 침입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허구의 단군전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마니시 류 주장의 핵심은 고조선[단군조선]이 중국 세력과의 길항 작용 속에서 그 영역이 대동강 일대에서 청천강 일대까지의 정도로 축소되었고, 이와 반대로 중국 세력은 청천강에서 대동강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연구자의 주장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7) 이근우, 2021,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8) 이마니시 류의 단군관에 대해서는 이미 체계적으로 분석·비판된 바 있어서(이근우, 2021, 앞의 논문), 본고에서는 그의 고조선[단군조선]관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9) 今西龍(著)/홍익재단(번역), 1934(미간행),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 『일본인의 단군연구』, 홍익재단.

Ⅲ. 단군부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오다 쇼고의 단군전승에 대한 언급 중에서 주목해서 검토할 만한 주장은 고려 후기 불교계 인물이 날조했다는 것, 충렬왕 이전에 단군전승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¹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과연 오다 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오다 쇼고의 주장처럼 『삼국유사』에 기술된 단군전승에는 불교적 윤색이 가미되어 있다. 환인을 제석이라고 했던 것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듯이 불교적 색채를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삼국유사』의 기록자가 일연이라는 승려였기 때문에 생긴 것일 뿐이다.

누구라도 역사서를 기술할 때 자신의 개인적 인식이나 감정, 사상적 배경이 반영될 수 있다. 일연이 대대로 전승되어 오던 단군전승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더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를 무턱대고 부정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는 ‘식민사학’이라는 태두리를 쳐두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논지를 전개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단군전승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가와 유가 및 재래의 신앙적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식민사학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고기(古記)』의 단군전승에서 환인이 환웅에게 준 천부인(天符印) 3개는 도교에서 말하는 호부(護符)라는 것이고, 환웅이 데리고 온 풍백·우사·운사도 중국 문헌¹¹⁾에 기술되어 있다는 점¹²⁾이 밝혀졌다. 그리고 곰이 쭉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 것은 도교에서 약을 먹고 신선이 되는 것과 관련되고, 신과 웅녀의 교합도 불교적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는 평가¹³⁾가 있다. 또한 환웅이 내려왔다는 태백산은 산악신앙, 신단수는 수목신앙, 환인은 천신신앙 및 태양신앙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¹⁴⁾

한편 단군전승과 유교의 관련성 연구도 제기되었다.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라는 어구는 유교적인 색채를 보여준다¹⁵⁾는 평가가 있다. 비슷한 시기의 이승휴는 『제왕운기

10) 小田省吾(著)/홍익재단(번역), 1926(미간행),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 『일본인의 단군연구』, 홍익재단.

11) 『舊唐書』, 「狄仁傑傳」, “天子之行, 千乘萬騎, 風伯清塵, 雨師灑道.”; 『春秋左氏傳』, 「昭公」 17년, “黃帝氏以雲紀, 故爲雲師而雲名.”

12) 조경철, 2005, 「단군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97~98쪽.

13) 김재원, 2000, 「단군신화의 사상적 배경」 『한국과 중국의 고고미술』, 문예출판사.

14) 袴田光康, 2010,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 -일본의 천신신앙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4, 연민학회, 470쪽.

《帝王韻紀》를 기술할 때 ‘상제(上帝) 환인(桓因)’이라고 하였는데, 상제는 유교에서 하늘의 주재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¹⁶⁾ 이렇듯 같은 신화적 내용이라도 기술자의 사상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기술의 내용과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술적 차이를 가지고 신화의 오리지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연이 단군전승을 기술할 때 불교적 용어를 쓰고, 불교적 색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다음으로 오다 쇼고가 근거로 제시한 『삼국유사』 이전에 단군전승을 기록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단군전승이 고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오다 쇼고의 주장대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시기에 일연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지금과 같은 단군전승이 완성되었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원시 형태의 단군전승이 과연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 태도 역시 일반적인 학자의 태도는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신화학, 고고학, 문헌학 방면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신화학적 방면에서는 동물을 조상으로 인식하는 수조(獸祖) 신화는 고려시대의 세계관으로는 형성될 수 없고, 그 이전의 고대로부터의 기원했다는 견해¹⁷⁾가 있다. 그리고 웅녀는 만주와 시베리아 및 동유럽에서 지중해까지 모계사회에서 부족의 섬김을 받던 신격 존재라는 견해¹⁸⁾도 나왔다. 단군전승의 기본 줄거리는 곰이 여인으로 변해 단군을 낳는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신석기문화를 담당한 고아시아족의 곰숭배 사상과 연결된다는 견해¹⁹⁾로 이어진다. 또 한편 천손강림·세계산(世界山)·세계수(世界樹) 등의 알타이계의 신화적 요소가 단군전승에는 삼위태백·신단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환웅이 웅녀의 배우자가 되는 이야기로 발전되었다²⁰⁾고도 한다.

그리고 고문화 혹은 고고학 방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 단군전승의 사실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후한 시기에 제작된 중국 산둥지역 무씨화상석과의 관련성 제기,²¹⁾ 그리고 집안 지역의

15) 이근우, 2021, 앞의 논문, 28쪽.

16) 조경철, 2005, 앞의 논문, 98쪽.

17) 조법중, 1999, 「古朝鮮關聯研究의 現況과 課題 -단군인식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서영대, 2000,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18) 김재희, 2018, 「유라시아 곰신앙과 단군신화의 쑥과 마늘을 통해 본 웅녀의 재해석」 『한국민속학』 67, 한국민속학회, 33쪽.

19) 김정배, 1973, 「고조선의 주민구성과 문화적 복합」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출판부.

20) 조법중, 1999, 앞의 논문, 368~369쪽.

고구려 고분 벽화가 단군신화와 연결된다²²⁾는 지적이 있었다. 이 중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한 논설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군신화 관련 소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고구려 고분은 5세기 초~중반으로 편년되고 있는 각저총(角觝塚)과 장천(長川) 1호분이다.

각저총 벽화에는 신성한 나무와 나무에 새가 깃들어 있는 모습, 곰과 호랑이가 함께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비슷한 시기의 무용총의 벽화 그림은 중국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각저총에서 보이는 그림의 내용은 고구려의 독자적 세계관과 풍속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²³⁾ 장천 1호분에서도 신단수(神檀樹)와 연결될 수 있는 나무의 등장, 웅녀와 같은 여인이 중앙의 나무에서 기원하는 모습, 굴속에 곰같은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단군신화와 연결된다는 지적²⁴⁾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평양 일대의 고분 벽화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집안 일대에서 단군전승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동예에 제천(祭天)과 제호(祭虎)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제사가 나온다.²⁵⁾ 이와 같은 동예에서의 호랑이 숭배 신앙과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곰으로 대표되는 단군전승이 고구려 지역에서 기원후 5세기 이전에 융합되어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한다. 곰 및 단군을 믿는 고조선과 호랑이 및 산천의 신을 믿는 동예의 자연신앙이 고구려시대에 영역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신앙면에서도 통합이 되어 단군전승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단군이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종합²⁶⁾된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단군전승에는 환웅이라는 천신 강림과 단군이라는 신선 사상이라는 또 다른 축이 있다.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 구조가 주몽신화를 통해 고구려 시대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조에서 송양(松讓)은 선인(仙人)의 후예라고 하였다.²⁷⁾ 그리고 같은 〈동천왕〉조에서 평양은 선인(仙人) 왕검이 머물던 곳이라고 했다.²⁸⁾

21) 金載元, 1976, 『檀君神話의 新研究』, 探求堂.

22) 강릉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력사과학』 96-3.

23) 조법중, 1999, 앞의 논문, 374~377쪽.

24) 강릉남, 1996, 위의 논문, 54·56쪽;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3, 한국고대학회, 160쪽.

25) 『三國志』, 「魏志」, 〈東夷傳〉,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擊銀花廣數寸以爲飾. … 漢末更屬句麗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26) 조법중(1999, 앞의 논문, 369~371쪽)은 한국 고대사회에 존재한 동물숭배 전통으로 단군과 관련된 고조선의 곰 및 동예와 관련된 호랑이 등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고구려에 포함되어 고구려 문화 형성의 일 요소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조, “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또한 <동명왕>조에서는 주몽이 자신은 천손임을 강조하는 모습²⁹⁾이 보인다. 단군전승에서도 환웅이라는 천신 강림과 단군이라는 신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고구려 시기의 두 사상적 개념이 융합되어 단군전승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의 서지학적 측면에서 일연이 기술하기 이전 단군전승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편을 작성할 때 본문 내용이 어디에서 채록한 것인가에 대한 전거를 제시했는데, 단군전승에 있어서는 『위서(魏書)』와 『고기』를 바탕으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일연이 단군전승을 고의로 조작했다면, 『위서』와 『고기』라는 책을 상상하여 기술하였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연이 『삼국유사』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이」편의 『위서』와 『고기』라는 출처도 진실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편목들의 자료 출처가 명확하다는 점은 「기이」편의 자료 출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일연은 단군전승을 『위서』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현전하는 『삼국지』의 「위지(魏志)」와 위수(魏收)가 편찬한 『위서(魏書)』에는 단군전승과 관련된 사실이 전하지 않는다. 『위서』에 대해서는 정인보 이래 조위(曹魏)나 왕심(王沈)의 『위서』 계열로 보거나,³⁰⁾ 또는 최치원에게 인용되어 국내에 유입되어 있었던 북제(北齊)의 위수가 편찬한 고본(古本) 『위서』로 보는 견해가 있다.³¹⁾ 이밖에도 『위서』로 불리는 사서로는 서진(西晉) 때의 왕침이 지은 『위서』, 위담(魏澹)의 『위서』, 위수(魏收)의 『후위서(後魏書)』, 배안시(裵安時)의 『원위서』 등도 일연이 언급한 위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³²⁾

이러한 『위서』들은 현재 문헌 자체가 대부분 전하지 않거나, 현존하는 서적에도 단군 관련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에만 ‘위만조선(魏滿朝鮮)’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에 착안하여 『삼국유사』 「기이」편의 『위서』는 위만조선에서 편찬한 사서라는 입장도 있다.³³⁾ 즉 ‘위만조선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儉.”; 『東國李相國集』 「東明王篇」, “沸流王松讓 … 曰 予是仙人之後累世爲王.”

28)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川王>조,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2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東明聖王>조, “恐爲追兵所迫, 告水曰, 我是天帝子, 何(河)伯外孫.”

30) 리지린, 1964, 『고조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04쪽.

31) 박대재, 2001, 『三國遺事』 고조선조 인용 『魏書』론, 『한국사연구』 112, 한국역사연구회.

32) 박대재, 2001, 위의 논문.

33) 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대구사학회, 18~21쪽;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 -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4-6, 6~7쪽; 김성수, 2004,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 29, 한국서지학회, 218~222쪽.

의 역사서[魏書]'라는 뜻인데,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충분할 거 같다.

한편 『고기』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적 명칭으로서의 고기, 둘째 신라·고구려·백제 등의 국명을 관칭한 각국의 고기, 셋째 중국의 사서와 대비되는 『해동고기(海東古記)』와 『삼한고기(三韓古記)』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³⁴⁾ 다른 한편으로는 고기가 일반적인 고기록에 대한 총칭이 아니라, 같이 인용된 『위서』 「당배구전」, 『통전』 등과 같은 특정 서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³⁵⁾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는 이러한 고기류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환인'이란 용어는 '제석'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기 이전에 쓰였을 것이므로, 7세기 백제 무왕대와 신라의 중고기에 제석신앙이 성행했으므로 『고기』의 성립 연대를 7세기 이전까지 소급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³⁶⁾는 주목받고 있다.

IV. 고조선 영역축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마니시 류³⁷⁾는 조선이 전국시대에 연나라의 세력에 압도되어 열수, 즉 대동강 남쪽까지 후퇴했고 연나라와 진나라는 대동강 북쪽까지 영유했다고 하였다. 진·한 교체기의 혼란이 끝나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영역에서 다소 물러나 패수, 즉 청천강으로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천강에서 자비령까지는 진나라의 옛공지[秦故空地上下障]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조선과 연나라의 항쟁 이전 고조선의 역사는 무시되었다는 것, 연나라가 대동강까지 쳐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은 청천강[패수]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진고공지상하장은 청천강에서 자비령 사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하에서는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고조선-연나라 항쟁 과정 이전에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 이마니시 류는 『관자(管子)』에 기술된 발조선(發朝鮮)³⁸⁾과 『전국책(戰國策)』, 『위략(魏略)』³⁹⁾의 기록을 애써 무시하고 있

34) 하정룡, 2005,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35) 김정배, 1987,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 조경철, 2005, 앞의 논문, 118쪽.

37) 今西龍(著)/홍익재단(번역), 1934(미간행), 앞의 논문.

다. 현재 한국 고조선사학계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아『관자』의 기록은 춘추시대에 존재했던 고조선의 상황을 말해준다는 견해가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위만조선 시기의 물질문화로의 계기적 발전을 보여주는 선계 문화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만조선의 물질문화는 세형동검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는데,⁴⁰⁾ 이는 연나라 진개의 침입 이후 와해된 요령성의 비파형동검문화의 후속 문화이다.⁴¹⁾ 즉 검병두식(劍柄頭式)·T자형청동제검손잡이·선형동부(扇形銅斧)의 변천이 ‘요서 → 요동 → 한반도’의 순서였다는 견해⁴²⁾는 세형동검문화의 전신이 요령 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결국 고조선의 형성 및 초기 과정에 있어서 그의 문화적 배경은 요서 지역에서 형성된 비파형동검문화⁴³⁾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⁴⁾

그리고 『전국책』 「연책(燕策)」편에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요동(朝鮮遼東)이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또는 『위략』에서는 전국시대에 조선후국(朝鮮侯國)이 연나라와 필적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때 조선후국을 요서 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의 남동구유형과 동대장자유형을 향유한 존재로 보는 견해에 입각한다면,⁴⁵⁾ 최소한 이마니시 류가 축소시켰던 전국시대 초기 혹은 그 이전에 이미 고조선이 존재했다고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학문의 미발달과 고고학 발굴의 부족으로 인해 춘추시대 고조선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실증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중국 문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전국시대 혹은 춘추시대 고조선의 기록을 무시했다는 것은 식민사학에 입각하여 한국사의 축소를 목적으로 했다

38) 『管子』 卷第23, 「揆度」 第78, “發朝鮮之文皮, 一策也.”; 卷第24, 「輕重甲」 第80, “發朝鮮不朝, 請文皮氊服而以爲幣乎.”

39)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40) 박선미,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 문화 성격 -평양 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東洋學』 第53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69~270쪽.

41) 趙鎭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학연문화사, 219쪽.

42) 오강원, 2003, 「東北亞地域 扇形銅斧의 型式과 視空間의 樣相」 『江原考古學報』 2, 江原考古學會, 79~81쪽; 2003, 「琵琶形銅劍~細形銅劍 T字形 靑銅製劍柄의 型式과 時空間의 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1, 韓國上古史學會, 23~24쪽; 2004, 「遼寧~韓半島地域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劍柄頭飾 研究」 『북방사논총』 2, 고구려연구재단, 21쪽.

43) 비파형동검문화는 기원전 9세기 경 조양을 비롯한 요서 일대에서 형성된 후, 기원전 6~5세기에는 심양 일대로 직접 진출을 한다(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429~514쪽).

44) 이에 관해서는 오현수(2012, 「『管子』에 등장하는 ‘穢貉’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 -‘穢貉’·‘發朝鮮’ 조문의 사료 맥락적 분석을 중심으로-」 『史林』 第43號, 成均館大學校 首善史學會) 참조 바람.

45) 오현수, 2015,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한국사학보』 제61호, 고려사학회, 59~61쪽.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가 어디이고, 연나라의 문화가 어디까지 확대되었는가를 통해 연나라 침입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략』에서는 연나라의 고조선 침입 이후 연나라의 동쪽 경계를 만반한(滿番汗)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⁴⁶⁾ 만반한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정약용이 문현(文縣)과 변한현(番汗縣)의 합성어로 보았는데,⁴⁷⁾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해성 동부~요양 서남으로,⁴⁸⁾ 개평(문현)·해성~개평 일대(변한현)로,⁴⁹⁾ 요동 지역의 천산산맥 일대로⁵⁰⁾ 비정하여 왔다. 『한서』 「지리지」에 요동군의 속현으로 문현과 변한현이 나온다⁵¹⁾는 점에서 이들 지역을 요동 지역으로 비정한 이러한 견해는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나라의 침입 이전에 고조선은 요동 지역에서 정가와자유형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정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4세기를 지나면서 요동 지역은 새로이 연나라의 문화로 전환된다. 철령~무순~안산~대련으로 이어지는 계선의 안쪽에서 기존 요령 지역의 토착 유물이 완전히 배제되고, 전국시대 연나라 유물만이 출토되고 있다.⁵²⁾ 그리고 연나라의 침입 이후에 요동 지역의 정치체들은 연나라식의 문화 지대로 바뀌기 시작한다. 요동 북부의 동요하 및 이통하 상류역, 중부의 혼하 및 소자하 유역, 태자하 상류역, 동부의 혼강 유역, 요동반도 남단에서 토착적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연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갖는 모습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⁵³⁾도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연나라 장성의 동단은 현재까지의 발견된 유적으로 보았을 때 부신과 창무의 남쪽 일대까지이고, 『사기』⁵⁴⁾와 『팔지』⁵⁵⁾ 등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요양시 북쪽 일대까지 축조되었을 가능

46) 『魏略』(『漢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引),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47) 『與猶堂全書』(『疆域考』 卷1), 「朝鮮考」, “漢書遼東郡屬縣有文縣有番汗縣. 後漢書遼東郡屬城有汶縣番汗縣, 滿番汗者, 汶番汗也.”

48) 申采浩(著)/李萬烈(註釋), 1998(원전 1929), 『譯註 朝鮮上古文化史』,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265~266쪽.

49) 盧泰敦,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49~54쪽.

50)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제2집, 일조각, 41쪽.

51) 『漢書』 卷28上, 「地理志」 第8下, 〈遼東郡〉條, “遼東郡, 戶五萬五千九百七十二, 口二十七萬二千五百三十九. 縣十八: 襄平, 新昌, 無慮, 望平, 房, 候城, 遼陰, 遼陽, 險瀆, 居就, 高顯, 安市, 武次, 平郭, 西安平, 文, 番汗, 沓氏.”

이 외에, ‘문현 관련 기록’은 『三國志』·『資治通鑑』·『讀史方輿紀要』 등에, ‘변한현 관련 기록’은 『漢書』와 『說文解字』에 기술되어 있다.

52) 오강원, 2011, 앞의 논문, 12~14쪽.

53) 오강원, 2011, 앞의 논문, 15~21쪽(즉 연나라의 미안구유형 외곽에 있던 토착 세력은 연나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54)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성이 있다고 한다.⁵⁶⁾ 만약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가 청천강이었다면, 청천강 이북의 영역에서 연나라의 직접적 문화 이식의 양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연나라의 문화와 장성의 위치가 요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은 청천강[패수]이라는 것도 자연히 부정된다. 연나라의 동쪽 경계는 만변한선인 해성과 개평, 천산산맥 일대에 해당한다. 연나라의 변경새도 만변한이라는 자연경계선 안쪽인 혼하 사이에 축성되어 변방 방어의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기』 「조선열전」에서 “한나라는 흥기한 다음, 그곳[遼東外徼]이 멀어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시 요동의 옛 새[故塞, 연나라의 변경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⁵⁷⁾고 하였기 때문에 요동고새(遼東故塞), 즉 연나라 변경새는 패수의 서안에 있었음도 당연하다.

거꾸로 말하면, 패수는 변경새의 동쪽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현재의 혼하에 해당한다. 『전한기(前漢紀)』에도 “요수(遼水)를 새로 삼았다”⁵⁸⁾고 전하고 있다. 여기에 기재된 요수는 소요수로⁵⁹⁾ 현재의 혼하이고,⁶⁰⁾ 새는 전국 연나라가 구축한 변경새라 할 수 있다. 즉, 연나라는 혼하[패수]의 서쪽에 새를 쌓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진고공지상하장은 이러한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의 경계인 패수[혼하]에서 진나라의 요동외요가 관장하고 있던 동쪽 경계지대에 해당하는 영역이 된다. 이에 앞서 진나라는 연나라를 멸하고서는 나중에 진고공지상하장이 된 영역 안에 요동외요(遼東外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고조선을 관장하려 한다.

그런데 요동외요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나라의 동북 방면에서 그 행정력이 비교적 약한 지역 중 진나라와 고조선의 경계가 되는 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진나라의 영역이면서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은 곧, 군사 주둔지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것의 확인은 진나라의 무기들의 발굴 정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진나라와 그에 속했던 전국시대의 무기들은 주로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⁶¹⁾ 진나

55) 『括地志』 卷8, “秦隴西郡臨洮縣, 卽今岷州城, 本秦長城, 首起岷州西十二里, 延袤萬餘里, 東入遼水.”

56) 오강원, 2010, 앞의 논문, 194~196쪽.

57) 『史記』, 「朝鮮列傳」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泅水爲界, 屬燕.”

58) 『前漢紀』, 「前漢孝武皇帝紀」 5 卷14, “朝鮮本秦時屬遼東, 漢興以爲其遠難守, 故遼水爲塞.”

59) 『水經注』 卷14, 〈小遼水〉조, “水出北塞外, 西南流逕遼陽縣, 注遼水.”

60) 吳江原, 1997, 「昌黎縣 位置에 관한 一考察 -古朝鮮 位置문제와 관련하여-」 『清溪史學』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清溪史學會, 42쪽.

61) 평양과 그 인근에서도 ‘진25년’ 명 동과와 ‘5년계씨’ 명 동모가 발견되었으나, 이것은 진나라 멸망 이후, 위만 조선 성립 이후에 평양으로 전입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라의 무기로는 요령성 관전에서 발견된 진나라의 ‘석읍(石邑)’명 동과(銅戈), 요양에서 발견된 ‘진상군수(秦上郡守)’명 과(戈), 무순에서 발견된 ‘여불위(呂不韋)’명 모(鉞)가 있다. 그리고 진나라의 것은 아니지만 진나라의 통일 전쟁기 전국 각국의 무기로 신금에서 발견된 ‘위계봉(魏啓封)’명 과(戈), 장하에서 발견된 ‘조춘평후(趙春平侯)’명 검, 집안에서 발견된 ‘조양안군(趙陽安君)’명 검 등이 있다.

그리고 진나라의 화폐인 반양전(半兩錢)도 주로 압록강 이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철령 신태자진 구가대 매납유적, 환인 대전자 주거지, 장백 간구자 적석묘, 집안 태왕릉 부근, 자강도 자성군 서해리 매납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⁶²⁾ 이러한 진나라 및 전국 각국의 무기들과 진나라 화폐 출토의 정황은 진나라 군사의 실질적 주둔지가 압록강 이북 일대라는 것을 말해 준다.

결국, 진나라는 옛 연나라의 영토를 장악하고, 이어서 천산산맥 이동의 토착집단을 격파하고 나서 압록강을 건너 고조선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조선은 위기의식을 느껴 조속히 진나라에 항복했고, 진나라는 이러한 항복을 승낙하여 양국의 경계를 압록강선으로 한정하여 압록강 이북에 변방 수비를 위한 군사들을 주둔시킨 것으로 보인다. 『회남자』에서 ‘동결조선(東結朝鮮)’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조선을 그대로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⁶³⁾ 또한 『위략』에서는 “조선의 부왕(否王)이 진(秦)나라 조회에 응하지 않았다”⁶⁴⁾고 하고 있다.

고조선이 이와 같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가 연나라를 치고 빼앗은 동북 지역 외곽에는 정식의 행정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약식의 요(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⁶⁵⁾ 외요(外徼)는 그 의미상 변경 밖에 설치된 요이다. 고조선이 외요에 속했다는 표현은 고조선이 중국의 동쪽 변경지대 밖에 속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조선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상, 연나라 이전 고조선[단군조선]의 존재와 고조선 후기 연나라의 침입으로 빼앗긴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마니시 류 견해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애초 이마니시 류에게 있어 단군과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 복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로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단군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조선의 후대 시기만을 인정하였는데, 이 또한 연나라와 항쟁하

62)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99~111쪽.

63) 『淮南子』卷18, 「人間訓」, “見其傳曰亡秦者胡也, 因發卒五十萬, 使蒙恬楊翁子, 將築脩城, 西屬流沙, 北擊遼水, 東結朝鮮.”

64) 『魏略』(『三國志』, 「烏丸鮮卑東夷傳」, 〈韓〉조引),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65) 오현수, 2018, 「『사기』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鄣’에 대한 검토 -진고공지상하장의 공간적 범위와 기능-」 『한국사학보』 제70호, 고려사학회, 49~52쪽.

던 전국시대 후반의 사실만을 인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체계적인 고조선사 연구로 인하여 그의 논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되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의 단군부정론과 고조선 영역축소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사 왜곡을 통해 한반도 통치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통칭 식민사관으로 통하는 역사 왜곡 작업에 가장 앞장섰던 일본인 학자로는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들 수 있다.

오다 쇼고는 1926년에 발표한 『문교의 조선』 중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에서 단군을 부정한 근거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단군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삼국유사』는 불교계의 승려가 날조한 것이다. 둘째, 단군전승이 기술된 충렬왕 이전에 이에 관한 전설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셋째, 단군은 한국 전체의 조상이 아니라 고구려 일국의 조상이다. 넷째 단군전승은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져 『삼국유사』에 등장했다. 다섯째, 조선시대에 들어와 단군전승은 국가적 색채를 더욱 짙게 띄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공연하게 선전했다.

그리고 이마니시 류는 「단군고」 등을 통해 단군을 부정하였고,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에서는 고조선의 영역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대 영역으로 축소하였다. 1929년에 출간한 『청구설총』에 게재한 「단군고」에서 단군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단군전승에 대해 유교와 도교에 의해 윤색된 것이고, 단군은 평양 지역에서 신앙되던 선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 간행된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이라는 글에서는 평양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왕검선인을 고려의 고종 때에 단군이라고 이름하고 고조선을 개국한 인물로 설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 부정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신화학, 고고학, 문헌학 방면에서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단군전승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가와 유가 및 재래의 신앙적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단군전승에는 초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신화학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단군전승의 일면목을 알려주는 그림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고구려 시기에 단군전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서지학적 측면에서도 일연은 『삼국유사』 전체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기이」편의 『위서』와 『고기』라는 출전도 진실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마니시 류가 고조선의 시공간성을 축소하려는 모습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는 전국시대의 고조선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조차도 고조선은 전국시대에 연나라의 세력에 압도되어 열수(烈水), 즉 대동강 남쪽까지 후퇴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나라는 강성할 때에는 대동강 북쪽까지 영유했다가, 한나라가 일어나자 패수를 경계로 했는데, 이 패수를 청천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에서는 『관자』에 기술된 ‘발조선’ 등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 동북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관자』의 기록은 춘추시대 전후의 존재했던 고조선의 상황을 말해준다. 그리고 『위략』에는 연나라와 고조선의 경계를 만번한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요동 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 기원전 4세기를 지나면서 요동 지역은 새로이 연나라의 문화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은 청천강[패수]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부정된다. 고조선의 영역을 한반도 서북부의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하려는 이마니시 류의 견해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과 단군조선 혹은 고조선에 대한 역사 복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단군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이 또한 연나라와 항쟁하던 전국시대 후반의 사실만을 인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오늘날 고조선사학계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대부분 청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검토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고조선사의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三國史記』, 『三國遺事』, 『與猶堂全書』.

『管子』, 『括地志』, 『舊唐書』, 『讀史方輿紀要』, 『史記』, 『三國志』, 『水經注』, 『說文解字』, 『資治通鑑』, 『前漢紀』, 『春秋左氏傳』, 『漢書』, 『淮南子』.

2. 저서

金載元, 1976, 『檀君神話의 新研究』, 探求堂.

리지린, 1964, 『고조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申采浩(著)/李萬烈(註釋), 1998(원전 1929), 『譯註 朝鮮上古文化史』,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趙鎮先, 2005, 『細形銅劍文化의 研究』, 학연문화사.

하정룡, 2005,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小田省吾, 1927, 『朝鮮史大系』, 朝鮮史學會.

3. 논문

강룡남, 1996, 「단군에 대한 고구려사람들의 이해와 숭배」 『력사과학』 96-3.

袴田光康, 2010, 「삼국유사에 있어서의 환인과 제석 -일본의 천신신앙을 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14, 연민학회.

김성수, 2004,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 29, 한국서지학회.

김재원, 2000, 「단군신화의 사상적 배경」 『한국과 중국의 고고미술』, 문예출판사.

김재희, 2018, 「유라시아 곰신앙과 단군신화의 쑥과 마늘을 통해 본 웅녀의 재해석」 『한국민속학』 67, 한국민속학회.

盧泰敦,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김정배, 1973, 「고조선의 주민구성과 문화적 복합」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출판부.

김정배, 1987,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盧泰敦, 200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박대재, 2001, 「『三國遺事』 고조선조 인용 『魏書』론」 『한국사연구』 112, 한국역사연구회.

- 박선미,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위만조선의 문화 성격 -평양 일대의 고분을 중심으로-」 『東洋學』 第53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 서영대, 2000, 「단군신화의 의미와 기능」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 徐榮洙, 1988, 「古朝鮮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제2집, 일조각.
- 吳江原, 1997, 「昌黎縣 位置에 관한 一考察 -古朝鮮 位置문제와 관련하여-」 『淸溪史學』 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淸溪史學會.
- 吳江原, 2003, 「東北亞地域 扇形銅斧의 型式과 視空間의 樣相」 『江原考古學報』 2, 江原考古學會.
- 오강원, 2003, 「琵琶形銅劍~細形銅劍 T字形 靑銅製劍柄의 型式과 時空間의 樣相」 『韓國上古史學報』 41, 韓國上古史學會.
- 오강원, 2004, 「遼寧~韓半島地域 琵琶形銅劍과 細形銅劍의 劍柄頭飾 研究」 『북방사논총』 2, 고구려연구재단.
- 오현수, 2012a,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중국 고대 문헌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9,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 오현수, 2012b, 「『管子』에 등장하는 ‘穢絡’과 ‘發朝鮮’의 역사적 실체 -‘穢絡’·‘發朝鮮’ 조문의 사료 맥락적 분석을 중심으로-」 『史林』 第43號, 成均館大學校 首善史學會.
- 오현수, 2015, 「『魏略』 기재 朝鮮侯와 ‘取地二千餘里’의 검토」 『한국사학보』 제61호, 고려사학회.
- 오현수, 2016, 「箕子傳承의 형성과정 연구」 『한국사학보』 제65호, 고려사학회.
- 오현수, 2018, 「『사기』 「조선열전」 기재 ‘秦故空地上下鄣’에 대한 검토 -진고공지상하장의 공간적 범위와 기능」 『한국사학보』 제70호, 고려사학회.
- 이근우, 2021,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 정상우, 2021,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한국학연구』 제62집, 한국학연구소.
- 丁仲煥, 1977, 「三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引用된 魏書에 對하여」 『大邱史學』 12·13, 대구사학회.
- 조경철, 2005, 「단군신화의 불교적 세계관」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법중, 1999, 「古朝鮮關聯研究의 現況과 課題 -단군인식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 조법중, 2005,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 -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3, 한국고대학회.
- 최혜주, 2010, 「小田省吾의 교과서 편찬활동과 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7호, 동북아역사재단.
- 今西龍(著)/홍익재단(번역), 1934(미간행),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 『일본인의 단군연구』, 홍익재단.
- 小田省吾(著)/홍익재단(번역), 1926(미간행),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 『일본인의 단군연구』, 홍익재단.
- 小田省吾, 1926,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京城: 朝鮮教育會.
- 田中俊明, 1982, 「檀君神話の歴史性をめぐって -史料批判の再検討-」 『韓國文化』 4-6.

ABSTRACT

A denial of the Dangun and the reduction of the Gojoseon A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Oda Shogo and Imanishi Ryu-

Oh, Hyun-Su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Japan sought to find the legitimacy of the Korean peninsula rule by distorting Dangun and Dangun Joseon. Japanese scholars who led the distortion of history of Dangun and Dangun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clude Oda Shogo and Imanishi.

Oda Shogo said that Dangun myths were fabricated by Buddhist figures in the late Goryeo period and there was no related record before that. The Dangun myths described in the *Samguk Yusa* are accompanied by Buddhist, but this happens naturally because the recorder, Ilyeon, was a monk. Anyone can reflect their personal perception, feelings, and ideological background when describing history book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Dangun myths contains not only Buddhism but also Taoism, Confucianism and traditional religious element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of Dangun myth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s of mythology, archaeology and literature. There were studies on the bear totem mythology, ancient mother mythology, the mural paintings of Goguryeo tombs in the Jian area, and the faith of 'Jecheon and Jeho' in Dongye.

On the other hand, Imanishi Ryu said that Joseon was overwhelmed by the forces of the Yan Dynasty and retreated to the south of the Daedong River, and Yan and Jin occupied the north of the Daedong River. He is a complete disregard for the history of Gojoseon.

However, the fact that Gojoseon already existed before the Gojoseon-Yan war has been proven in literature and archaeological studies. The record of 'Baljoseon' described in *Guanzi* and the non-wave-like bronze sword culture in northeast China tell the historical situation of Gojoseon before the Chosunhou' rule period. And the boundary between Gojoseon and Yan is the

manpanha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manishi Ryu's view to limit the area of Gojoseon to some parts of the nor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is wrong.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had no interest in restoring the history of Dangun, Dangun Joseon, or Gojoseon. Today, Korean historians can say that most of the remnants of colonial history have been liquidated, but the critical review of Japanese scholars' distortion of history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Key words : Oda Shogo, Imanishi Ryu, Dangun, Dangun myths, Gojoseon, <i>Samguk Yusa</i> (三國遺事), manpanhan(滿番汗)
--

